

#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홍인숙\*

## 차례

1. 근대계몽기 '지식'과 '여성'의 무리한 관계
2. 근대계몽기 '여성 지식'의 종류와 성격
  - 2.1 초등 수준의 교육 내용 - 근대적 존재로서의 지적 각성
  - 2.2 여성 대상 독학용 교재 - '국한문 읽고 쓰기'의 획득이라는 목적
  - 2.3 전문적인 분과학문으로서의 '가정학' - 젠더화 된 근대 지식의 권유
3. 여성들이 추구한 지식 - '논설'이라는 글쓰기 형식, 그 특수성과 의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대계몽기 '지식'이 새롭게 형성되고 재편되는 구도 속에서, '여성에 대한 지식'과 '여성이 원하는 지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근대계몽기의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근대계몽기에 제공된 '여성에 대한 지식'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첫째, 여성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던 '초등 수준의 기초 지식', 둘째, 여성 교재를 통해 제공되었던 '국한문'의 읽고 쓰기 능력, 셋째, 전문적인 학문으로 소개된 '가정학'이었다. 첫째, 본고는 초등 수준의 기초 지식을 통해 당대 여성들이 '산수, 이과, 지리, 국문, 역사' 등 근대적 지식 분류를 접하고, 스스로를 근대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둘째, 여성 대상 교재들이 담고 있던 국한문 리터러시의 교육 내용은, '한글'만이 여성의 글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

\* 이화여대 국문과 강사

였다. 셋째, ‘가정학’이라는 전문적인 학문이 이 시기에 처음 소개되긴 했지만, 가정학은 이때까지 실제 여성 대중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근대계몽기 여성들이 추구한 지식은 ‘논설’이라는 글쓰기였다. 국채보상운동을 계기로 1907년과 1908년에는 신문에 여성 독자투고가 급증하였다. 이들의 글쓰기는 형식적인 한문 문장과 계몽적 주제를 맴도는 상투적인 글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글쓰기는 신문과 같은 ‘공적 매체’에, 국가에 대한 ‘공적 이슈’를 소재로, 논설이라는 ‘공적 양식’으로 쓰인 글이었다. 근대계몽기 여성의 글쓰기는 곧 이 여성들의 지적 욕망이 강렬하게 공적 영역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논설’ 글쓰기의 의미는 이 시기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 시기 여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지식 미만’의 것이, ‘에크리튀르’보다는 ‘리터러시’의 획득이 겨우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글쓰기는 초보적이고 상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근대적 기초 지식과 국한문을 배운 그들이 최초로 시도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자신의 말’이었다. 또한 이러한 여성 글쓰기는 근대계몽기 여성이 남성 주류 담론이 기획한 여성 지식과 근대적 젠더 이분법을 벗어나는 ‘사이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해석하였다.

핵심어 : 근대계몽기, 여성 지식, 이원금(李源兢), 노병희(盧炳喜), 장지연(張志淵), 강화석(姜華錫), 『가덩잡지』, 국한문 리터러시, 가정학, 여성 글쓰기, 논설

## 1. 근대계몽기 ‘지식’과 ‘여성’의 무리한 관계

지식의 영역과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다. 고정불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근대계몽기 여성 지성을 다루기 전에 이 글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시기에는 무엇을 ‘지식’이라고 규정했는가, 이 시기는 어떠한 지식을 원했는가, 이 시기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 보급되었는가 하는 일일 것이다.<sup>1)</sup> 서

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질서를 깨닫고 제국주의의 침략성이라는 ‘외부’의 공포를 통해 민족과 국가라는 ‘내부’를 발견하게 되었던 시대였던 만큼, 근대계몽기 지식의 규정과 생산을 둘러싼 담론의 중심에는 ‘문명화’와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sup>2)</sup> 즉 이 시기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근대 문명, 또는 근대국가 형성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했고, 그 목표에 가깝다고 여겨질수록 가치 있고 중요한 지식이 되었다. 전통적인 유교적 교양에 대한 지나친 가치 폄하와 이때 막 수입되기 시작한 신학문에 대한 급격한 경도와 선망은 그러한 배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신학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개된 것은 대부분 근대적 분과 학문 체계를 소개하는 것과 세계 각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정보였다. 신문, 잡지, 학회지 등의 대중적 인쇄매체에는 문학, 언어, 역사, 지리, 법학, 정치학, 국가학, 행정학, 대수학, 광학, 물리학, 생물학, 가정학, 위생학, 교육학의 전 영역이 번역되어 교과서나 백과사전처럼 열거되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하게 망라된 지식의 나열과 총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하

- 
- 1)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을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큰 맥락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2007.
  - 2) 근대계몽기 학회지와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견해는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양 열강들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의 저변에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실용적인 학문정신이 뒷받침되어 있으니 하루빨리 그것을 배우고 익혀 저들과 같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신문명을 접한 청년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김지영, 「학문적 글쓰기의 근대적 전환」, 『우리어문연구』 27집, 2006. 333쪽.; ‘국민소학독본’은 첫 단원부터 부강한 나라를 위한 지식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의 지식이란 결코 전통 유학이 추구한 군자가 되기 위한 공부 가 아니다. 이제 지식은 오로지 실지 응용 여하에 따라 그 좋고 나쁨이 결정되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지식, 말하자면 기술지식만이 유용한 지식이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지식이다. 이러한 실용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문명개화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이다.’, 전용호, 「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과 『국민소학독본』」, 『우리어문연구』 25집, 2005, 261쪽.

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적인 힘과 문명을 갖춘 근대적인 국민 국가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근대계몽기 조선에 수입된 신학문 및 지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것이었다. 이 시기에 소개된 근대적 분과 학문 및 서구 지식들은 대부분 일본을 통해 번역되어 들어온 것이었으며, 그 형태는 중역(重譯), 경개역(梗概譯), 발취역(拔萃譯), 번역임을 명시하지 않은 번역, 재번역과 재수록, 번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서의 직역(直譯)과 완역(完譯)이 원칙처럼 지켜졌으며 번역자의 충실성이 ‘주밀문체(周密文體)’라는 번역문체를 유행하게 할 만큼 주도면밀한 번역주의를 채택했던 일본의 상황<sup>3)</sup>이나, 강유위나 양계초와 같은 일부 지식인이 전문 번역자 역할을 자임했던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근대계몽기 조선의 신지식은 국망을 눈앞에 둔 다급함만 앞설 뿐 다소 체계 없이 소개되고 있었으며 개략적인 내용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무릇 사람에 세상에 살면서 동물들의 영장이 됨은 오직 심성의 고상함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으로써 어찌 심리를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란 평소 각 사람에게서 움직이는 바이지만 종종 그 진정한 이치는 온전히 어두우니 이는 곧 먹어도 그 맛을 모름과 다름이 없다. 이에 내가 휴가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수업 받은 강야(岡野) 문학사(文學士)의 강의에서 번잡한 내용은 빼고 간단한 내용을 뽑은 뒤 사이사이 내 의견도 첨부하여 독자들에게 보이고자 한다.<sup>4)</sup>

3) 가토 슈이치, 마루야마 마사오,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 2008. ; 김동기,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철학』, 2003.

4) ‘大凡 人生이 世間에 棲息호시 動物의 靈長이 됨은 혼갓 心性의 高尚함을 謂호이니 人이오 엇지 心理의 如何함을 不究호리오 心이란 個個人의 常에 動作호는 必로되 往往히 그 眞理에 全味호니 此는 곧 食호여도 其味를 不知함과 無異함으로 茲에 余의 休暇를 利用호야 學校受業中 岡野文學士講義의 煩劇함을 祛호고 簡單함을 取호야 間도 己意도 添附호야 讀者僉位의게 供覽호노라, 韓興教, 『心理學의 精要』, 『大韓學會 月報』 4호.

입법, 행정, 사법 여러 종이 분립하여 구미와 일본에는 이미 많은 의견이 이루어져 부인이나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것이지만, 우리 중국은 나라를 세운 지 수천 년에 이러한 정치학 원리는 아직 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거칠고 평이한 글로 대략 해석하여 이로써 정치사상이 국민에게 보급되기를 바라노라. 글 중에 비록 간간이 태서의 학설을 따라서 풀었으나 그 논한 것이 대략 모든 서양인은 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분명히 아는 이치이다. 스스로 이 학문에 조금 능통한 사람이 본다면 거의 요동의 돼지(잘난 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식견이 좁아서 남 보기에는 별로인 것)나 송나라 사람의 별 꼬임(잘 되라고 도왔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음)과 같은 것이니 말의 낭비임을 깨달을 뿐이다.<sup>5)</sup>

근대계몽기의 학회는 ‘학회’라는 이름처럼 지식 형성만을 목표로 한 아카데미한 집단은 아니었다. 이 시기 학회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단체’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단체였다. 이들은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계몽’의 방식을 택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회의 기관지인 ‘월보’가 서구 지식을 수입, 번역하고 그 내용을 가공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맡게 되면서 신학문의 형성과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월보들에는 으레 서구의 근대학문을 소개하는 고정란이 있었다.<sup>6)</sup>

위의 첫 예문은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한 『대한학회월보』에 게재된 「심리학의 정요(精要)」라는 글로, 여기서 글쓴이는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심리학’이라는 지식의 근원이 유학중 수강했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

5) ‘立法行政司法諸種이 分立호야 在歐美日本에 旣成陳言호야 婦孺ㅣ 盡解矣라. 然 吾中國은 立國數千年에 於此等政學原理를 尙未有發明之者라. 故로 今以粗涉平易之文으로 略詮演之호야 以其政治思想이 普及國民호노라. 篇中에 雖間祖述泰西學說이노 然所論者ㅣ 大率皆西人은 不待論而明之理라. 自稍通此學者로 觀之면 雖殆如遼東之豕와 宋人之曝호야 祇覺詞費耳라.’ 「政治學(續)」, 『湖南學會月報』4호.

6) 홍인숙, 「대한자강회의 운동성과 지향 연구-자강회 내부의 이질적 그룹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30집, 2010.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예문은 『호남학보』에 실린 「정치학」이라는 글로, 번역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계초의 「정치학설」을 국한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시기 양계초 글이 소개되는 전형적인 중역(重譯)의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저자인 양계초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인데, 그는 자기가 소개할 정치학설의 수준을 ‘요동의 돼지(遼東之豕)와 송나라 사람의 별 쪼임(宋人之曝)’에 비유하면서 그 내용이 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정도라서,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의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근대계몽기 조선의 신지식은 전반적으로 초보적이고 비체계적인 단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을 통해 다급하게 신학문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일본과 만주의 신문 기사, 양계초로 대표되는 일본 체류 중국 지식인 저술의 축약역, 초기 유학생의 단편적인 지식 정도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근대계몽기 월보인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호남학보』 등에는 양계초가 일본 체류시 발행한 신문인 『청의보(淸議報)』와 『신민총보(新民叢報)』를 출처로 한 「논유학(論幼學)」, 「학교총론(學校總論)」, 「논사범(論師範)」 등의 글이 연속게재, 전재(全載), 반복게재 되고 있었고,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등에는 일본의 신문 잡지를 요약하거나 수업 노트 및 교재를 요약한 기사가 종종 실렸다.

근대계몽기 월보들은 체제 면에 있어서도 불안정하고 비체계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 시기 월보 중 가장 나중에 등장하여 가장 안정된 목차체계를 갖고 있었던 『대한홍학보』조차도 실제 기사와 체제상의 혼란이 있었던 만큼 다른 월보들은 그러한 체제상의 비통일성이 더욱 심했다.<sup>7)</sup>

7) 김지영은 근대계몽기 학회지가 다종한 형식 체계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대한홍학회보』의 ‘연단(논설), 학해(학문), 사전(역사전기), 문원(한문), 사조(한문), 잡찬(기사 또는 기타)’의 6부 체제로 안착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표면적으로 안정되어 보이

평균 20호 내외를 발행하는 동안 월보들은 일정한 목차 체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상위 항목이 자주 없어지거나 바뀌었고 하위항목에서도 계통이 맞지 않거나 이질적인 기사가 삽입되는 등 예고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신학문의 소개와 보급을 통해 자력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근대계몽기 월보의 내용이 다분히 비전문적이었으며, 그 체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은 이러한 근대계몽기 신지식 형성의 불안정함과 계통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근대계몽기의 신학문 또는 신지식의 수준을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904~1910년의 이 짧은 시기에 아직 신학문에 대한 권위를 갖춘 전문적인 지식인 계층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교와 한학이라는 구지식은 국망의 상황을 구제할 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권위가 추락했고, 수입 번역되어 들어온 신학문은 근대 문명국가로 나아가실 실질적인 방책으로 여겨지면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아직 전문적 지식인층은 형성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근대계몽기 조선의 남성 지식인이라는 범주가 주는 어중간한 인상과 비전문성의 실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 새로운 지식을 둘러싼 조선의 전반적인 상황의 이러한 어설피름 속에서, ‘지식’과 ‘여성’을 연결시키는 일의 무리함이다. 근대계몽기의 조선에서 ‘지식’과 ‘여성’을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 근대계몽기의 여성지성, 또는 여성지식인, 또는 여성작가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는가. 1920년대 초까지 한국 여성의 99%가 학교교육과 무관했던 상황에서 1900년대의 여성들에게 지식

---

는 6부 체계도 실제로는 그다지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개별 글들의 성격이 체제 구분과 같이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지영, 앞의 글, 339~340쪽.

의 최대값은 ‘지식 미만의 것’, 즉 ‘읽고 쓰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여성의 지식이라든가 나아가 여성지성을 논하기에 이 시기는 너무 이른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 지성의 창출’이라고 하는 대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지식’이나 ‘지성’이라는 거창한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지식을 둘러싼 근대계몽기만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먼저 근대계몽기 여성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였는지, 이 여성들에게 허용되고 권장된 지식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 지배담론이 여성들에게 제안한 근대계몽기 ‘여성 지식’의 종류와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여성 지식’을 습득한 근대계몽기 여성들이 스스로 지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행위로 남긴 ‘글쓰기’의 종류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여성들이 지배담론이 제안한 여성 영역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 남성 지배담론이 여성들에게 제안한 지식과 여성들이 원한 지식은 ‘다른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시기 여성들의 글쓰기는 근대계몽기 남성 지식인들이 설정한 ‘여성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위성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2. 근대계몽기 ‘여성 지식’의 종류와 성격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근대계몽기 여성들이 습득할 수 있었던 지식의 종류와 성격이다. 이 시기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는 ‘여학교’라고 하는 근대적 제도교육기관을 통한 것이었지만, 그 외에도 혼자 공부하는 용도로 나온 교재 성격의 책이라거나, 여성에게 관계된 영역을 다루는 단행본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시



기 여성들에게 제공된 지식의 범주와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여성 지식’이라는 용어는 고정불변의 절대적 범주로서의 여성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여성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의 주체로 가정되는 남성 지식인 또는 지배담론의 주체들이, 여성들에게 ‘여성 영역의 지식’이라고 ‘제시’하고 ‘설정’한 지식을 잠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2.1. 초등 수준의 교육 내용 - 근대적 존재로서의 지적 각성

근대계몽기는 신학문의 번역 수입이 처음 본격화되는 시기였으나만큼, 계몽 단체 및 신문 매체의 교육운동은 학교라는 제도 설립을 강하게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신식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결의가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학교들의 설립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이 당시 여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지식’의 종류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磚洞 普信女學館은 有內外法<sup>호</sup> 韓國士族女子를 教授<sup>호</sup>에 便利케 <sup>호</sup>야 專以婦人教師로 選用<sup>호</sup>는디 日本婦人 淵澤氏가 修身 日文 讀書 算術科를 教授<sup>호</sup>고 日本婦人 村井氏 造花 編物 等科를 教授<sup>호</sup>고 日本婦人 井出氏가 音樂 體操 等科를 教授<sup>호</sup>고 韓國婦人 金召史가 國漢文 習字 作文 等科를 教授<sup>호</sup>는디 (『대매』 1906. 5.25)

又況女學校之設이 韓國朞有之盛舉나 然이나 如今進明學校之教育은 不過日語科而已오 養閨義塾之教育은 不過尋常科而已로되 (『대일』 1906. 6.17)

평양서 인국녀학교를 창립<sup>호</sup>고 本년 삼월 십륙일에 기학<sup>호</sup>았난디 지금 녀학도의 슈효가 륙십여명이오 교과난 국문 한문 산술 디지 력사 일어 등 여섯 가지인디 (『제국』 1906. 6.19)

당시 여학교에서 가르치던 과목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교과목을 포함

하고 있었다. 종종 ‘편물, 지수, 재봉, 가사부기’ 등의 전통적인 여성 과목이 들어가 있기는 해도 대다수 학교에서 공통적인 과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문, 습자, 독서, 작문, 일어, 한문, 독본’ 등 읽고 쓰는 능력, 즉 언어 및 외국어 능력에 관한 과목이었다. 이외에도 ‘산술, 역사, 지지, 물리, 이과’ 등의 과목과 같은 근대적인 분과 학문의 제목을 가진 과목들도 발견할 수 있다.<sup>8)</sup>

물론 근대계몽기 전반의 신지식 수준을 참고할 때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여학교에서 가르쳤을 이 과목들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이 당시 여학교에서 가르친 교과 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자료는 유일선, 주시경, 진덕기 등 신민회 및 상동교회 중심의 지식인들이 발행한 『가정잡지』<sup>9)</sup>라는 여성 대상 잡지의 기사이다. 여기에는 당시 여학교에 갈 수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학문을 전달하겠다는 취지 하에 ‘빅과강화’라는 제목으로 당시 여학교에서의 수학 과정과 똑같은 ‘산술, 리과, 디지, 국문, 력사’ 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다.

- 
- 8) ‘평양 애국녀학교는 …… 교수 문당찬씨와 녀교수 계씨가 열심으로 교육하여 일반 성도의 국문 한문 산술 습자 슈신 등 제과가 대단 진취하여, 『제국』, 1906. 11.29) ; ‘長興洞 培花學堂은 美國婦人 姜氏 김벨의 創立한 女學堂인디 英語 算術 漢文 國文 地誌 歷史 繡刺 等 科程으로 熱心教育호지 于今近十年이라, 『대매』 1906. 7.1 ; ‘修身 讀書 習字 算術 地理大要 物理大要 衛生 看病 育兒 家事經濟 家計簿記 等 女子에 切要한 學科를 選擇호고, 『황성』 1906. 7.9 ; ‘女子教育에 着手호야 該教會應接室에 精華女學校를 權設호고 該校教師 近 祐神氏가 委任호야 本國 國文과 日語를 教授호는대, 『대매』 1906. 11.14 ; ‘該生徒는 一百二十名을 募集하고 卒業期限은 三個年으로 定호얀디 學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地理 歷史 理科 圖畫 家事 裁縫 音樂 體操라더라, 『황성』 1908. 2.6 ; ‘삼년급학도 과목 영어 산술 한문 국어 독본 료리 창가 체조 …… 이년급학도 과목 영어 산술 한문 국어 독본 료리 창가 체조 …… 일년급학도 산술 국문 한문 소학 창가 테요, 『女子指南』 1권 1호, 47~48면.
- 9) 『가정잡지』는 3~5, 7호((1906. 8~12)가 남아있다. 발간 취지는 『황성』 1906. 7.3일자에 실려있다.

산술 이번에는 가표를 말습호오리다 가표라 하는것은 곳(+)이니 그 쓰는 법은 두 수 사이에 기록호면 좌편수에 우편수를 더호는 말이라 (7호)

리과 공기의 무거음(空氣重量)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안이호나 무거음이 있어 쌍의 만물을 홍상 높이고 잇소 지금 공기의 무거음을 실험호겝소 큰 유리병에 공기를 빼고 저울에 달면 그병에 공기니코 달제보담 가벼으니 공기의 무거음이 명백호읍는이다 (공기를 빼는 기계가 잇으니 이담에 말호겝소)(5호)

국문 즈모음의 대강이야기 음이라 호는 것의 소리가 발호는 것은 모음 썸이라 이럼으로 발호 음은 순전호 모음이거나 모음의 즈음이 의지호여 한겹의 발호 것이요 즈음만 발호는 법은 도모지 업는지라 이런즉 발호 음은 아모것이던지 모음이 다 석겝은즉(7호)

디지 남한산은 경성동남스십리 광주에 잇는 산이라 삼각산과 7티 서로 바라보고 그 형상이 삭갓을 뒤집어노호듯하고 황성을 보호호는 중디라 이럼으로 그우에 성을 썸으니 이른바남한산성이라(7호)

력스 신라 시조의 성은 박이요 명은 혁거세니 당초에 진한이 룽류로 난 호어 쥬마다 쥬장이 잇는지라 마한 양왕 오년에 이쥬장들이 연천이란 쌍에 모혀더니 양산 수풀 사이에 이상호 기운이 보이거늘 가본즉 한 호희가 시내물에 목욕호는디 형용이 단정호고 광치가 령롱호며(4호)

여기 실린 기사들은 당시 여학교에서의 수학 과정과 그 속에서 전달되 었던 지식의 수준을 짐작하게 해준다. 숫자를 읽고 쓰는 법, 덧셈의 의미 등을 설명하는 ‘산술’ 과목이나 ‘모음과 자음의 이치’를 설명하는 ‘국문’ 과목, 서울 시내의 산천 위치를 제시하고 있는 ‘디지’ 등의 과목의 사례는 근대 분과 학문의 제목을 취하고는 있지만 다루는 내용은 매우 초보적인 입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초보적인 수준의 근대 교육을 받은 근대계몽기 여학생

들이 보여준 사회적 발언과 행동은 사뭇 적극적이고 대담한 것이었다. 거리에서 연설하는 여학생의 표상은 이 시기 신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기사거리였고, 1907~10년 당시 자주 개최되었던 연합운동회<sup>10)</sup>에서는 여학생들이 ‘의외심과 연약상태’를 버리자는 ‘운동가’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근대적인 학문을 배워 국가 분자로 형성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sup>11)</sup> 연동(蓮洞) 여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회의를 열어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겠다고 나섰으며, 양규의숙(養閨義塾) 여학생들은 학교운영 문제를 놓고 분란이 생겼을 때 부패한 관료 진영인 보학원(普學院) 세력에 반발하고 스스로 양원학교(養源學校)로 분리되는 쪽을 선택하였음을 신문사에 알리러 찾아갔다.<sup>12)</sup>

10) 1907년 11월에는 개성 만월대에서 1908년 5월에는 인천에서 남녀 연합운동회가 각각 열렸다. 1908년 6월 서벌에서 열린 경성·수원·개성·인천 등 12개교 이상 여학교의 연합운동회에는 황재와 엄비도 참석했다. 이해 10월에는 경회궁에서 경성 지역 여학생 연합운동회가 연합 9개교 438명의 규모로 열렸다. 1909년에는 5월에 개성 지역 연합운동회, 명신여학교의 경북궁 운동회, 관립한성고등여학교의 창덕궁내 비원 운동회가 열렸고, 보학원·진명여학교·승동 예배당여학교에서도 각각 운동회가 열렸다. 1909년 11월 성북동 음벽정에서 관립고등여학교 운동회, 장충단에서 숙명여학교 운동회가 열렸고, 1910년 5월에는 경성 지역 여학교 연합운동회가 8개교 751명의 규모로 서벌에서 개최되었다.

11) ‘同胞中에 女子들도 國家分子 되여나서 忠君愛國 ㅎ랑이면 學問업시 엇지ㅎ리 (생략) 日氣쫓코 너른뜰에 女子學生 運動이라 軟弱常態 다버리고 活潑ㅎ게 나가보세 압설女子 누구잇나 一等賞은 내것일세 나가보세 나가보세 勇猛ㅎ게 나가보세 女子들아 女子들아 忠心烈心 잇지마라 지더리도 落心마라 後日다시 勝負決斷 終日토록 行樂다가 凱歌불너 도라올제 君國萬歲 學校萬歲 萬歲三呼 하여보세’, 『만세보』, 1907.5.26.

12) ‘연동 여중학교 학도들이 회동상의왈 피동포는 위국이순자도 유현대 아베는 수여즈나 불가불출의라 ㅎ고 당일야부터 제증원에 제왕ㅎ야 부상장졸롤 열심간호ㅎ매’, 『대한매일신보』 1907.8.4 ; ‘普學院 學員 金順喜 等 二十七人이 本社에 來ㅎ야 言ㅎ기를 本生徒等은 女子普學院 名譽가 好美ㅎ야 至今까지 入學ㅎ 것이 아니오라 任員 講師 諸氏의 熱心과 規模를 感服ㅎ았습더니 本任員 講師 諸氏가 辭退ㅎ은즉 차라히 工夫는 못홀지언딩 普學院 生徒되기는 더단이 忿恥ㅎ와 一齊히 退學하여 養源學校 學生이 되읍느니다 ㅎ더라’, 『황성』, 1908.6.30.

근대계몽기 여성들에게 제공된 기초적인 형태의 근대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근대적 존재로서의 자기 각성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내용이 비록 숫자를 읽고 덧셈을 배우고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한 음절이 만들어진다는 정도의 초보적인 형태였을지라도, 그러한 지식이 갖고 있는 ‘근대지’적 성격은 그것을 배우는 이들에게 적어도 자신을 전통적인 ‘부녀’에서 벗어난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으며, 그러한 감각이 그들로 하여금 과감한 사회적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접했던 것은 지식의 깊이나 전문성은 아니었으나, 다양한 과목의 존재, 즉 ‘지식의 근대적 분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류 체계를 통해 ‘근대지’적 성격에 접촉했다는 사실은 그것을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근대적 질서 속에 들어온 존재로 느끼게 하는 지적 각성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2.2. 여성 대상 독학용 교재 - ‘국한문 읽고 쓰기’의 획득이라는 목적

한편 이 시기 여성 교육에서의 평균적인 수학 내용과 지식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자료는 여성 교과서 용도로 편찬되었던 서적이다. 이 당시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측되는 단행본<sup>13)</sup>

13) 근대계몽기 출판된 단행본 서적 중 여성 계몽에 관련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남녀평권론』(1908), 『남녀육아신법』(간행년 미상), 『보통입신론』(정운복, 선우예, 일한서방, 1907), 『부유독습』(강화석, 이준구 발행, 황성신문사, 1908), 『부인필지』(우문관, 1908), 『여자독본』(장지연, 광학서포, 1908), 『여자수신교과서』(노병희, 1908), 『세계문명산육신법』(이상익, 고금서해관, 1908), 『쇼오교육』(1908), 이상은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14집, 1999, 69쪽 참조. ; 이외에도 당시 신문에 실린 서적 광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성 대상 서적의 제목을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서(女書)』(간행년 미상), 『초등여학독본(初等女學讀本)』(이원궁, 1908), 『여자신독본(女子新讀本)』, 『여자교육설(女子教育說)』, 『가정학(家庭學)』(이상 『대매』, 1906.6.5 광고 ‘平壤鐘路大同書館主人告’), 『세계십이여걸(世界十二女傑)』(『대매』, 1906.6.14 광고 ‘大同書館出售書目續’), 『처녀위생(處女衛生)』(『황

중 초등 단계에서의 여성 교육 대상 서적으로 짐작되는 책은 ①이원금(李源莚)의 『초등여학독본(初等女學讀本)』(1908), ②노병희(盧炳禧)의 『녀즈소학수신서』(1908), ③장지연의 『녀즈독본(女子讀本)』(1908), ④강화석(姜華錫)의 『부유독습(婦幼獨習)』(1908)이다.

이 책들의 성격은 각기 조금씩은 달랐다. 제목이 지시하는 정보에 따르면 ①과 ③은 ‘독본(讀本)’이라는 말대로 학교에서 읽기 교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②는 ‘여성 수신서’, 즉 여성교훈 및 윤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④는 ‘부유(婦幼)’, 즉 여자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학용 책일 것이다. 제목과 실제 교재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①은 ‘독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전통적인 여성교훈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수신서적 면모를 갖고 있다는 점, ②는 ‘수신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독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책이라는 점, ③은 읽기 교재의 성격에 한자 학습의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둘 만한 특징이다.

① 人道의 有五倫하니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 是謂五倫이라 盖人倫이 始于夫婦하니 太初에 上帝 | 造一男一女하시고 祝之曰 生育이 衆多해야 昌盛於地하라 하시니라 / 스람도에드섯린륜이잇스니부자는친이잇스며군신은의가잇스며부부는분별이잇스며장유는차례가잇스며붕우는신이잇스니이름오름이라일음이라더기

성』, 1906.11.1 ‘皇城中晡布塵屏門下書鋪金相萬告白’), 『태내교육(胎內教育)』, 『가정학(家庭學)』, 『여학생(女學生)』(이상 『대매』, 1907.1.30 광고 ‘皇城中晡布塵屏門下書鋪金相萬告白’), 『가정교육학(家庭教育學)』(『황성』, 1907.7.10, 광고, 『대매』 1907.7.10, 10.17 광고, 1908.5.9, 광고), 『근세여걸라란부인전(近世女傑羅蘭夫人傳)』(『대매』, 1907.10.17 광고), 『국문신찬가정학(國文新撰家庭學)』(『대매』, 1907.12.20 광고, 『대한민보』, 1909.12.10 광고), 『신편가정학(新編家廷學)』, 『한문가정학(漢文家庭學)』(이상 『황성』, 1908.11.6 광고), 『부인의범(婦人義範)』(『대한민보』, 1909.9.12 광고 ‘京城中部典洞四十八統八戶 光東書局李鍾禎), 이상 자료는 강명관 선생님이 정리한 근대 계몽기 출판서적목록에 의거한 것이다.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린륵이부부에비로섯스니티초의하나님의서일남일녀를민드시고비러갈아스  
더심육이만코만아씨의서창성하라하시니라

② 데일과 암전 대녀녀女즈子的 헝헝는것과 안는것과 늙는것과 일어나는것은 남男즈子和 다름이 만으니 맛당이 암전하고 씩씩하며 단端正하게 하되 머리를 자조빚으며 웃옷과 알에치마를 보병일소록 깨끗이하고 미스를 허슈이말고 서기와안기를 기울게말며 거만흔 모貌양樣을 들어내지말며 크게 웃지말며 크게 소리질지말고 성性품品대로 공空然然이 심술내며 성내지말고

①과 ②는 독본과 수신서의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학교 교재 성격의 책이다.<sup>14)</sup> ① 『초등여학독본』은 서문에서 밝힌 대로 전통적인 여성교훈서들인 『여계(女誡)』, 『내칙(內則)』, 『가훈(家訓)』을 바탕으로 하여 위은 초등 단계의 여성용 독본이다. ‘명륵장(明倫章), 입교장(立教章), 여행장(女行章), 전심장(專心章), 사부모장(事父母章), 사부장(事夫章), 사구고장(事舅姑章), 화숙매장(和叔妹章)’의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녀즈소학슈신서』는 총 5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2면 남짓이다. 각 과의 제목은 ‘암전, 존절, 악흔동모, 비홀것, 씻고닥는것, 의복, 본분, 어진부인, 례절, 안히직분, 삼강오륜’ 등으로, 전통적인 여성 교훈의 내용이 약간 섞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근대적 윤리 관념을 제시하는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독본 성격의 수신서이다.

두 책은 지향하는 내용 면에서도 약간 상반되며 얼핏 보기에도 매우 다른 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두 책은 내용 면에서 각각 ①은 전통 지향, ②는 근대 지향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문체 면에서도 ①은 국한문으로 된 본문을 앞세우고 딱딱한 번역체의 한글 풀이 문단을 뒤에 병치한 형태인 반면, ②는 거의 순한글로 된 자연스러

14) 『초등여학독본』과 『녀즈소학슈신서』는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운 구어체 문장의 본문에 드물게 단어 옆에 작은 크기의 한자가 병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은 여성 윤리를 습득하게 하는 수신적 성격과, 본문의 ‘읽기’가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는 독본적 성격을 경유하여,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자’에 대한 정보 습득까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녀女즈子독讀本本상上 남南승嵩山山인인장張지志연淵 집輯 대第일  
一장章 총總론論 데일과課 녀즈는 나라 백百성姓된자의 어머니될 사름이  
라 녀즈의교敎育育이 발發달達된 후에 그 즈녀로호여곰 착한 사름을 일올  
지라 그런고로 녀즈를 ㄱ르침이 곳 가家庭庭敎育을 발달호야 國國民民의  
지智識識을 인引도導호는 모模범範이 되느니라 女계집녀 子아들즈 독讀  
을독 本근본本 남남녀남 嵩 높홀승 山되산 人사름인 ……<sup>15)</sup>

장지연의 『녀즈독본』은 상권 64과, 하권 5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과의 길이는 2면 내외로, 여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국내외 여성 인물의 생애를 일화로 제시하고 있다.<sup>16)</sup> 이 책은 따로 서문이 없고 ‘총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1장이 서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대계몽기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국민 양성자’로서의 모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담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sup>17)</sup> 여기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본문의 구성방법이다. 여성의 일화를 제시하는 부분의 본문은 한글로 표

15) 장지연, 『녀즈독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8권, 아세아문화사, 1977.

16) 이강옥, 「장지연의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애국부인전, 여자독본, 일사유사」, 상하, 『한국학보』16권 3,4집.

17) ‘여성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자질 갖추기에 집중돼 있었다. 근대적 교육을 내면화한 어머니만이 근대적 국민을 낳고 기를 수 있다는 모성담론이 계몽주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확산된다.’ 김경연,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미일신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45집, 2007, 232쪽; 홍인숙, 「국민교육을 위한 매개자: ‘국민양성자’로서의 ‘현모」,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혜안, 2009.



기되어 있으며 단어 옆에 작은 크기의 한자를 옆에 달아놓았는데, 이러한 본문 뒤에는 각 과마다 그 본문에서 나왔던 한자들을 한데 모아서 제시하는 한자 소개 문단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한자를 모아놓은 문단에는 각각의 한자 옆에 작은 크기의 한글로 음과 뜻이 적혀 있어서, 한자 교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④ 혹가도가빈한하야 학교에서공부할수 업거나 혹나히 이삼십되여 가스에 얽미여 공부하기어려운 어린오희들이 집안헤잇서서 혼자공부하기위하야 이칙을 내여부인네와 동몽의게 일반분이라도 유조하기를 바라옵…… 이칙에 한문한글스즈에 사김토를흔번씩 만든것은 공부힘써하기를위함이라 만일스즈이 토를돌면토만쓰라놉고 한문스즈에는 힘이적게쓰일거시니 그러면글스즈가 눈에 박이지아닐지라…… 이칙 상하권에 새로새지가 이천여즈가되니 이두권을비흔후에는 옷갓 국한문칙이나 국한문신문을 보시기가 무려히 넉넉호오니 보시다가 간혹모를즈는 옥편에차보시면 그만이오 하필학교에가거나 독선싱을청하리오…… 天하늘턴地싸디日날일月월월星별성 하늘노덥고 싸호로싯고 날과달노 비취이는것은 다사름을 위함시오<sup>18)</sup>

강화석의 『부유독습』은 서문에서 그 목표를 뚜렷이 밝혀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은이는 형편상 학교에 갈 수 없는 여자나 나이 든 사람들이 ‘혼자공부하기위하야 이 칙을 내었으니 일반분이라도 유조’하기를 바란다며 이 책이 ‘독학용’ 교재로 쓰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독학을 위한 책인 만큼 이 책으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음을 서문에 밝히고 있다. 예컨대 그는 한문 한 글자에 새김토를 한 번씩 단 이유를 ‘공부힘써하기를위함’이라고 하면서 글자마다 토를 달면 토만 따라 읽게 되는 폐단이 생기므로, 새로운 글자들

18) 강화석, 『婦幼獨習』,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8권, 아세아문화사, 1977.

을 ‘눈에 잘 박이게’ 하기 위해 토를 한 번씩만 달았다고 하였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책으로 공부하는 이들이 새로운 한자 ‘이천여자’를 혼자 익히게 하여 학교에 가거나 독선생을 붙일 필요 없이도 ‘온갖 국한문칙이나 국한문신문을 보시기가 무려히 넉넉히’ 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본문 구성 체제를 보면 다섯 글자 내지 여섯 글자의 한문 구절을 쓰고 그 뜻을 한글로 풀이하였으며, 한문 옆에는 작은 크기의 한글로 음과 뜻을 표시하여 한자 낱자와 한문구절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시기 여성용 교재류의 서적들은 책의 내용이나 서술 방식 면에서는 각각 다르지만, 같은 의도와 고민을 본문의 구성 및 표기 방법에 투영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것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이들에게 기초 한자를 익히게 한다는 목표이다. 즉 대체로 ‘주한글 중한문’의 방식으로 쓰여진 이 책들은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국한문의 리터러시’ 능력을 획득하게 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형식으로 보인다.

근대계몽기에 여성에게 필요한 지식 중의 하나로 ‘한자’ 또는 ‘한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글로 간주되었던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서 나아가 ‘한문’이라고 하는 보편적 문자의 읽고 쓰기 능력을 여성이 배워야 할 지식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성과 지식의 관계 설정에서도 전통적인 여성 윤리적 규정력이 약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계몽기 여성 지식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특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전문적인 분과학문으로서의 ‘가정학’ - 젠더화 된 근대 지식의 권유

근대계몽기 여학교 교과목 종류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과목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젠더적 분류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성용 교재류에서는 젠더화 기제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것은 서구 근대의 공사/남녀의 이분법이라기보다는 ‘약화된 형태의 전통적 여성윤리’의 형태였다. 이러한 근대계몽기 여성 지식의 구도에서 새롭게 젠더화 된 근대 지식으로 등장한 것은 ‘가정학’이었다. 계몽단체들의 학회지에는 연속 기사로 가정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고, 단행본 서적으로 출판된 여러 종류의 가정학 책들도 있었다. 기사명과 서적명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학’을 표제에 내세운 경우

\*① 김명준, 『가정학역술(家庭學譯述)』(국한문), 『서우(西友)』 3호~8호, 1907.<sup>19)</sup>

\*② 이기, 『가정학(家庭學)』(국한문, 간혹 한글문단 첨부), 『호남학보(湖南學報)』, 1호~8호, 1908.<sup>20)</sup>

③ 『가정학(家庭學)』, 1906(1907)

19) 각 호별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3호 ‘小兒教養’, 4호 ‘哺育’, 5호 ‘小兒의衣食과居住’, 6호 ‘小兒生齒와種痘와疾病’, 7호 ‘小兒의動靜과遊戲’, 8호 ‘家庭教育之必要’

20) 각 호별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1호 ‘家庭學總論, 家庭의必要, 家庭의責任, 家人監督, 乳兒를教育하는大要(+한글문단), 胎育의關係(+한글문단), 2호 ‘妊婦의衛生, 妊婦의動靜, 哺育(+한글문단), 母乳의注意(+한글문단), 乳母의選擇(+한글문단), 人工哺育, 乳를哺하는時刻, 乳를斷하는期’, 3호 ‘小兒의衣食宿(+한글문단), 衣服의種類(+한글문단), 衣服의製造(+한글문단), 衣服의增減, 衣服의清潔, 飲食의種類(+한글문단), 食物의調理(+한글문단), 飲食의分量(+한글문단), 食時의注意(+한글문단), 居하는室의選擇(+한글문단), 4호 ‘室內의整潔’ 등

- \*④ 『가정교육학(家庭教育學)』(국한문), 보성관(普成館), 1907. 독립기념관 소장.<sup>21)</sup>
- \*⑤ 박정동 역, 『신찬가정학(新撰家庭學)』(국문), 190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sup>22)</sup>
- ⑥ 『신편가정학(新編家庭學)』(국한문), 1908.
- ⑦ 『한문가정학(漢文家庭學)』, 1908.

2) ‘임신, 육아’에 관련된 가정학 하위분류의 경우

- \*① 이사주당(李師朱堂), 『태교신기(胎教新記)』(국한문),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2호~6호.
  - ② 『남녀육아신법(男女育兒新法)』, 간행년 미상.
  - ③ 정운복, 『보통임신론(普通妊娠論)』, 1907.
  - ④ 『태내교육(胎內教育)』, 1907.
  - ⑤ 이상익, 『세계문명산육신법(世界文明產育新法)』(국문), 1908.
- (\*표를 한 목록은 실제 내용이나 실물 서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먼저 가정학 표제를 달고 있는 목록 중에서 ①과 ②는 학회지 소재 연속 기사로, 가정학의 개념과 전문적인 육아법 내용을 소개하였다. ③이 하는 단행본 서적이다. ③『가정학』은 당시 신문에서의 서적 광고를 통해 제목만 확인될 뿐이라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⑥『신편가정학』과 ⑦『한문가정학』은 광고문, 또는 제목에 명기된 표기 상태로 짐작컨대 실제 서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④『가정교육학』과 ⑤『신찬가정학』은 가정학 관련 대표적인 서적이었던 듯 당시 신문의 서적 광고에서 자주 제목이 발견되며 각각 독립기념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④는 보성관에서 발행한 국한문 교재로 상당히 전문적인 아동 심리 및 아동 교

21) 『가정교육학』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一 家庭과 兒童, 二 婦人과 兒童, 三 兒童의 健康, 四 兒童의 情育, 五 兒童의 賞罰, 六 身體教育, 七 運動, 八 衛生, 九 精神教育’

22) 『신찬가정학』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어린아희교양, 제2장 가정교육, 제3장 늙은이봉양, 제4장 병보음, 제5장 교제, 제6장 피난, 제7장 하인을 부림’

육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⑤는 국문으로 쓰인 가정학 교재로 아동교육, 가정관리, 봉양, 간병, 교제 등의 다양한 여성 지식을 소개하였다.

다음 가정학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목록들 중 ② 이하는 모두 제목만 확인되는 것들인데, ③『보통임신론』과 ⑤『세계문명산육신법』의 경우는 광고 문구가 남아있어서 각 책의 성격을 약간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③은 일본 의사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生殖器, 生理衛生’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④는 ‘內外國諸大家의 育兒方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3)</sup> 가정학 관련 전체 목록에서 2)의 ①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번역일 것으로 짐작된다. 기사 및 서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근대계몽기 ‘가정학’에서 강조된 것은 ‘가정 내에서의 위생 관리 및 의식주의 검약’, ‘태교와 육아 방법’, ‘아동의 발달과정’ 등이었다.

근대계몽기에 ‘가정학’이라고 하는 지식은 앞서 살펴본 초등 수준의 각종 과목들이나 교재류들과 달리, ‘~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근대 과학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학문이자 전문성을 갖춘 고등한 학문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 당시 ‘가정학’ 관련 기사 및 서적의 보급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정학’이라는 학문이 이 당시 여성들이 가져야 할 고급한 지식, ‘여성이 갖추어야 할 근대적인 지식’으로 권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3) 鄭雲復, 『普通妊娠論』, 『妊娠論可觀 今回 漢城泥岷 日韓書房에서 發賣 普通妊娠論은 日本에 有名 婦人科大醫의 所著인디 生殖器를 明細實寫 眞寫眞銅板 十數葉이 卷首에 挿文 如何 無知者라도 其生殖에 原理와 生理衛生에 奧妙를 知得 터인디 日本에서도 十數萬卷을 賣盡 앗다더라』, 『황성』, 1907.7.27; 이상익, 『世界文明産育新法』, 『世界文明産育新法 全一冊正價 金三十錢 文明의 進化는 教育에 在 胎育과 産育은 教育의 基本이라 故로 內外國諸大家의 育兒方法을 摘要 純國文으로 譯述 一般社會에 鮮得키 便易 子女를 愛重 同胞는 陸續購覽 務望』, 『황성』, 1908.4.15

그러나 이 시기에 유통된 가정학의 특성으로 국한문, 또는 한문 표기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 지식인 남성 매체인 학회지 기사에 실려 있다는 점, 단행본의 경우도 고등 과정의 전문서적 외양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당시 가정학이라는 학문은 처음으로 조선에 소개되어 여성들에게 ‘권장’되고 있을 뿐, 근대계몽기의 실제 여성 독자대중과의 거리는 꽤 멀었으며, 따라서 그 당시 여성들의 일상과 신체를 규율하는 지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24)</sup>

### 3. 여성들이 추구한 지식 - ‘논설’이라는 글쓰기 형식, 그 특수성과 의미

앞에서 살펴본 것이 근대계몽기 여성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유통된 지식의 종류와 성격이었다면, 이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여성들이 원했던 지식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이다. 여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든, 전통적인 교육의 잔여로 인해서든 ‘읽고 쓰기가 가능한 여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대사회적 말하기이자 공적 발화로서의 ‘글쓰기’였다.<sup>25)</sup> 이 시기 여성들이 대사회적 발언을 하는 창구로 이용한 것은 신

24)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이러한 특징은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들에게 ‘가정학’이 보급되었던 상황과 비교해볼 만하다. 박선미, 『가정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일제하 여자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21집 2호, 2004. 참고. 이 논문에서는 일제하 조선의 여자유학생의 30% 이상이 일본의 여자고등교육기관에서 가정학을 전공했고, 이들이 ‘합리적인 가사 처리를 위한 과학적 지식과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풍’을 익히고 돌아와 ‘여성의 영역, 즉 가정에 관한 전문가’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5)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글쓰기 중 연설 및 논설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권용선, 『근대적 글쓰기의 탄생과 문학의 외부』, 한국학술정보, 2007. ;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이외에도 근대적 글쓰기

문, 잡지 등 근대매체의 ‘독자투고’란이었고<sup>26)</sup> 그러한 독자투고를 통해 이들은 근대계몽기의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명화’ 및 ‘근대 국가 형성’의 방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무론 남녀로소하고 가로상에 연초를 먹는다거나 의연금 모집에 슈슈방 관허거나 혹 협잡허거나 방희허는 자는 결단코 디한동포가 안이오 국가에 죄인이라 곱히 생각할 바이어니와 방금동포님네 열심히 국치를 잡게 허옵시니 깃부고 깃부오나 엇지허여 우리나라난 이갓치 빈약허여 티산갓튼 빗슬지고 자유운동이 말유허였시니 슸흐고 슸흔지라 (김경지씨 부인, 『삼화향패물폐지회취지서』, 『제국』 1907. 4.4)

특히 여성들의 독자투고가 절정을 이룬 것은 1907년과 1908년이였다.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커다란 국민화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여성

---

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량 축적되어 있다. 사실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성격과 위상을 정확하게 좌표화하기 위해서도 근대 글쓰기 전반에 대한 연구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라는 시대의 특수성과 여성을 둘러싼 지식의 형성이라는 기획 주제에 관련하여 글쓰기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자 했으므로, 근대계몽기의 글쓰기 전반의 지형도 안에서의 여성 글쓰기의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은 다음 논의에서 보다 정교하게 진행해 보고자 한다.

26) 이러한 근대계몽기의 여성 독자투고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로서 신소당이라는 인물을 발굴해내고, 『제국신문』의 ‘독자투고’의 양식을 통해 근대초 여성들의 글쓰기가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이후 윤정원, 한남여사 등 주요 여성작가 및 독자투고란의 군소 여성필자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이어졌다.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문학연구』 8집, 2004. ;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 신소당(申蕭堂)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국문학연구』 11집, 2004. ; 유정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의 형성과 계기들-학술지 태극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0집, 2009.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 형성 과정』, 『한국고전문학연구』 14집, 2006. ; 홍인숙, 『근대초 여성 논설작가 한남여사와 여성논설의 의미』,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혜안, 2009. ; 전은경, 『근대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집, 2010.

들은 개인으로, 단체로 의연금을 기부하면서 신문에 취지서와 소감을 투고했다.<sup>27)</sup> 이러한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글쓰기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집단적이고 공적인 열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으로 인한 1907년의 투고 증가는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여성으로서의 집단적 자아를 표출하는 사건이었다. 1908년에는 여성이 투고한 장문의 논설이 신문 1면의 논설란에 실리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sup>28)</sup> 이는 여성독자투고가 흔히 신문의 3면의 잡보란에 ‘기서(奇書)’의 형태로 실리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이들 논설이 취하고 있는 주제, 즉 신문의 계몽적 역할을 치하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등 당시의 계몽운동의 큰 방향에 일치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논설은 글의 장르적 특성상 문학성이나 개성적인 특징은 거의 드러날 수 없었으며, 형식적인 한문투의 상투어구를 반복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와 같은 계몽적 주제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신문 보도의 공정성을 칭찬하는 말은 예외없이 ‘신문은 천하의 이목이라 귀사에서 출츄필법으로’, ‘신문이란 거슨 출츄필권을 잡고’, ‘미일신보는

27) 국채보상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부인회들이 신문에 발표한 취지서는 다음 9개이다. ‘婦人減餐會敬告文’(『만세보』1907.3.2), ‘대구부인회경고아아부인동포라’(『大韓每日申報』, 1907.3.8), ‘국채보상부인회취지서’(『皇城新聞』, 1907.3.16), ‘김포검단면국채보상사무소’의 ‘婦人發文’(『제국신문』, 1907.3.25), ‘淸北江界婦人汲水報償會勸告文’(『皇城新聞』, 1907.3.30), ‘인천항적성회취지서’(『제국신문』, 1907.4.1), ‘佩物廢止會’(『제국신문』, 1907.4.4~4.6 ; 『대한매일신보』, 1907.4.28~5.1에 실린 ‘패물 폐지부인회취지서’와 동일), ‘탈환회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7.4.23), ‘減餐會趣旨書’(『대한매일신보』, 1907.6.28) 이외에 개인으로 의연금을 내면서 투고한 기사는 더 많다.

28) 漢南女士, 『祝每日申報』, 『대매』, 1908.2.28 ; 漢南女士, 『勸告婦人界』, 1908.3.20 ; 弄雲娘子, 『教育이 現今의 第一急務』, 1908.6.30 ; 金松哉, 『我韓婦人界新思潮』, 1908.8.1 ; 張敬主, 『女子教育論』, 1908.8.11 ; 鄭나훤, 『女子의 教育이 卽 師範教育이라』, 1909.2.20.



출츄필범으로 공정한 언론이 란신적즈를 두렵게 호고'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었고, 여자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말은 '아모리 녀즈라도 이천만 동포중 인물이 아니남이 아니오니', '비록 녀즈라도 명예와 부귀를 가히 흘거시오', '비록 녀즈라도 교육하면 녀중군즈도 될거시오 규중호걸도 일울지니' 등의 동일한 수사가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특수성과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설이 갖고 있는 '공적인 특성' 때문이다. 근대계몽기 논설은 신문, 잡지 등의 '공적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고, 민족과 국가, 정치적 이슈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소재'를 다루었으며, 글의 형식에 있어서도 논설이라고 하는 가장 정형화된 '공식적 양식'을 택하고 있다. 즉 이 시기 여성 논설은 비록 정형화된 수사와 투식구라는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의 내용과 형식이 지시하는 이 여성들의 지적 욕망은 공적 영역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었던 것이다.

금일 이찌는 룡쥬가 상통호고 민방이 교섭호야 약육강식호며 학문으로 경정호는 시대를 당호고로 (강용숙, 『대매』 1907.5.23)

오호라 현금동셔가 기통호매 우렬이 현슈호니 삼천리강산이 장춧 엇지 될고 (리지춘, 『대매』 1908.4.4)

오늘날 심존경정호는 시디를 당호야 만국이 교통호고 각요해처에 항구를 열고 만국사람이 분담히 썩기여 사느찌니 (기성 룡운, 『대매』, 1908.5.22)

동양에 우리 대한반도데국은 디세가 삼천리오 인민은 이천만이며 산천의 슈려호 괴믹으로 인물의 성흙과 례의문물과 성현의 도덕이며 (녀스김송지, 『대매』, 1908.8.1)

우리한국은 신성한 민족이 이천만이오 명랑호 산천이 삼천리가 되니 부썩호겅이 엇거늘 (장경쥬, 『대매』, 1908. 8.11)

태조고황데씨셔 초야에서 니러나샤 삼척검을 잡으시고 삼한을 통일하샤 집을 변호야 나라를 습으신 만만세에 (한남여사, 『대매』, 1908.3.19)

태조고황데 기국 오빅여년에 성즈신손이 계계승승호샤 시화세풍호고

우순풍도호야 레의법도의 유명키는 동방에 데일이라 (리지춘, 『대매』, 1908.4.4)

우리 이천만 인구중에 일천만은 녀인이오 남즈 일천만도 학문이 업서  
무식함으로 유의유식호고 허랑방탕호여 (김확실, 『대매』, 1907.9.12)

첩은 일기 녀즈나 이천만 분의 혼 분자요 국가의 신민 되기는 남녀 일반  
이요 지금 지명세계에는 남녀가 동등인바 (리동신원, 『대매』, 1907.5.23)

근대계몽기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지식 미만’의 것이 겨우 허용되었던 상황, 에크리튀르가 아닌 리터러시의 획득이 주요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로소 ‘논설’이라는 재미없는 장르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 아닐까. 즉 이들에게 ‘논설’은 기초적인 국한문 능력과 상황별 투식구를 연습하여 글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장르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즈를 피시는 노비갓치’ ‘침션방적과 음식이나 맛하보고’ ‘집속에 갓치여 곱히 속박’되었던 이들이 ‘현금동셔가 기통하매 우렐이 현슈하고’ ‘륙쥬가 상통하고 문방이 교섭호’는 시대상을 운운하는 양식적인 글을 공적인 매체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 당시 여성들에게 나름대로 전복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였다.

또한 이러한 여성 논설의 지적 추구 방향이 당대의 남성 주류 담론이 기획했던 ‘가정학’과 같은 젠더화 된 여성 지식과 괴리를 보인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1세대 신여성 여성 작가 나혜석이 과시했던 유학생 출신 지식인 여성다운 과학적인 가사처리 능력과 가정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글쓰기가 공사/남녀의 근대적 이분법의 맥락 속에 위치한 여성 지식인의 출현을 웅변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기 여성 논설의 지적 욕망은 남성 지식인들의 근대적 이분법이 공고화되기 전, 그것의 배치를 비껴나가는 ‘사이의 존재’로서의 근대계몽기 여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가정잡지』

『大韓學會月報』

『湖南學會月報』

강화석, 『婦幼獨習』,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8권, 아세아문화사, 1977.

노병희(盧炳喜), 『녀즈소학수신서』, 1908.

장지연, 『녀즈독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8권, 아세아문화사, 1977.

이원경(李源兢), 『초등여학독본(初等女學讀本)』, 1908.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2007.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혜안, 2009.

가토 슈이치, 마루야마 마사오,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 2008.

권용선, 『근대적 글쓰기의 탄생과 문학의 외부』, 한국학술정보, 2007.

김경연,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미일신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5집, 2007. 209~238쪽.

김동기,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철학』 14집 2호, 2003. 263~290쪽.

김지영, 『학문적 글쓰기의 근대적 전환-구한말 학회보의 학해 면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집, 2006. 323~360쪽.

박선미, 『가정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 일제하 여자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1집 2호, 2004. 77~109쪽.

- 유정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의 형성과 계기들-학술지 태극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0집, 2009. 159~183쪽.
- 이강욱, 「장지연의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애국부인전, 여자독본, 일사유사」 상하, 한국학보16권 3,4집. 3221~3239쪽, 4047~4092쪽.
-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8집, 2004. 67~98쪽.
-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 신소당(申蕭堂)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국문학연구』11집, 2004. 115~140쪽.
- 전용호, 「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과 『국민소학독본』」, 『우리어문연구』 25집, 2005. 243~264쪽.
- 전은경, 「근대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집, 2010. 41~74쪽.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한국고전연구』 14집, 2006. 103~130쪽.
- 홍인숙, 정출현, 「대한자강회의 운동성과 지향 연구-자강회 내부의 이질적 그룹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집, 2010. 353~381쪽.

## The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Women, and Writing in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Hong, In-sook

This thesis intends to explore how 'knowledge of women' and 'knowledge desired by women' were formulated in different ways within a newly forming knowledge system in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This exploration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that exists among knowledge, women, and writing in the period.

'Knowledge of women' in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is considered to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is 'a basic, elementary level knowledge' which was provided to women by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is the reading and writing ability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provided by textbooks written for women. Last is 'home economics' as introduced by formal education.

This thesis shows three interpretations of women's knowledge. First of all, women in the period learned modern knowledge, such as arithmetic, natural sciences, geography, Korean, and history, through a basic, elementary level knowledge and they began to find themselves as modern people. Moreover, the contents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 literacy in the textbooks for women suggest that only Hangul is used for women's writing,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riting style of the time. Lastly, home economics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ame period, but has been proved to have no close relation to women.

Meanwhile, the knowledge pursued by women took the form of an 'editorial' in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Contributions from female readers in newspapers greatly increased between 1907 and 1908, caused by the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The writing seems including

formal Chinese sentences and subjects aiming at enlightenment. However, editorials were written in a formal way and appeared in public media, such as newspapers, to deal with public issue for the country. The writing of women in the period indicates that their intellectual desire was aimed at the public sphere.

The true meaning behind writing an 'editorial' can be examined regarding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period. This is because they could only acquire literacy rather than *écriture*, which was not a real knowledge but an inadequate knowledge. Though writing seems elementary and casual, it was their first attempt to express what they truly wanted to say to society as they learned modern basic knowledge and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It is also considered to be evident that women were 'Ontology of the between', which was outside of women's knowledge formed by men in a modern dichotomous way.

**Keywords** :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knowledge of women, knowledge desired by women, Lee Wongung(李源兢), Nor Byunghee(盧炳喜), Jang Jiyoun(張志淵), Kang Hwasoek(姜華錫), Kajungjabji(가녕잡지, Home Magazine), reading and writing ability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home economics, writing of women, editorial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